

01 교회소식

오늘은 기쁜 날!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은 우리 교회.

02 생명의 말씀

화평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시리즈 설교, 진리의 마음을 이루고 범사에 화생하며 섬길 때 온전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03 기획특집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예배·기도·성물 등과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04 간증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인생~”

권능의 역사로 아내의 불임을 치료받아 아빠가 된 인도 프로 모드 꾸마르 성도와 허리디스크를 치료받은 최춘화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710호 2015년 11월 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쉬지 않고 기도하면 축복이 넘칩니다!”

### 천국 잔치 같은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시상식



9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추석 연휴 제외) 21일씩 두 차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한 성도들은 만민기도원 주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마지막 날 시상식에서 예능위원회 공연과 추첨을 통해 함께 기쁨을 나누며 응답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안식년을 맞아 산상기도 중인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전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해 힘센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

성경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기도 쉬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살전 5:17, 삼상 12:23). 이에 개척 때부터 기도해 힘센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밤(금요일은 금요철야예배로 대신)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인도로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진행된다.

1986년 5월부터 시작한 합심 기도회는 이후 다니엘철야 기도회라고 명명되었고 오늘날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21일 만에 응답받은 것(단 10:12~14)을 근거로 하였으며, 만민기도원에서는 21일 단위로 주제를 정하여 주최하고 있다.

GCN 방송(www.gcntv.org)과 인터넷 생방송(www.manmin.org)을 통해 국내외 지교회와 지성전에서도 동참하고 있는 21일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매년 두 차례씩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로 42일간 진행된다.

지난 10월 25일(주일), 2015년 하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시상식이 있었다. '열매'(살전 5:23)라는 주제로 9월 7일부터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42일간 진행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가 마쳐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 교회 상공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나 설렘으로 하루를 보낸 성도들은 준비찬양이 시작되는 저녁 8시 30분

이전부터 성전에 앉아 찬양하며 시상식을 기다렸다.

저녁 9시, 사도신경 후 송승철 형제와 송지형 교육 전도사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은 만민기도원 찬양팀, 사랑울동단, 크리스탈싱어즈, 한주경 찬양선교사의 공연과 더불어 사이사이에 추첨이 진행되었다. 성도들이 제출한 마흔두 알의 포도송이가 그려진 기도체크표를 대대교구장을 비롯한 교회 머리급들이 추첨할 때마다 성도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함께 기뻐하였다.

아동주일학교 어린이부터 학생, 청년, 장년, 주의 종, 장로, 권사에 이르기까지 추첨된 성도 199명에게는 선물(예배상) 교환권이 주어졌다. 네 차례의 추첨이 끝난 뒤에는 안식년을 맞아 산상기도 중인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추첨하여 보내준 대상이 발표되었다. 교역자 회장 이수진 목사가 "손일경 집사"라고 이름을 부르자 성전은 우레와 같은 축하의 박수로 가득하였다.

끝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전화 연결을 통해 응답과 축복을 위해 기도받는 시간이 있었다. 이 목사는 "마지막 때 모이기 힘쓰라고 하셨는데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불같이 깨어 기도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기도원 원장님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가 참여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뒤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제목을 위해 40여 분간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대상을 받은 손일경 집사(46)는 "부모님을 모시고 경제적으로 가장 역할까지 하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는 하혈을 하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심해져 체력도 약해졌지요. 이번 특별 다니엘철야가 시작되기 전, 꿈에서 당회장님의 심방을 받았습니다. 철야 기간 내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못한 것과 영적인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졌지요. 지금은 하혈도 멈추고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응답과 축복이 가득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본격적인 제3도 약기를 위해 준비된 아름다운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 화평의 열매

깨뜨린 것입니다. 결국 연단과 시험 환난을 자초한 것이기에 가족과도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 사이에 참된 화평을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잠 16:7). 물론 내 편에서는 진리 안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상대가 악해 화평을 깰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끝까지 진리로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 2.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뤄야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야 자신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악이 있으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미움, 혐기, 시기, 욕심과 같은 것이 끓어오르니 힘들고 불편하지요. 또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이 서로 싸우면 참으로 곤고해 집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불같이 기도하여 계속 진리를 행한다면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열심히 진리를 행하는데도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잘못 만들어진 의와 성격의 틀 등으로 인한 것이지요.

예컨대, 율법적인 틀에 매여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못하지요. 진리를 행치 않으면 징계가 올까봐 두려워서 초조한 마음으로 행하기에 순간 진리를 행치 못하면 징계를 받을까 염려하며 주눅이 들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열심히 진리를 행한다 해도 마음이 힘들고 믿음의 성장도 정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해 가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부정적인 사고의 틀로 자기와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진리를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오면 심히 자책하고 고통받으며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했으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키면 됩니다. 진정 회개한 사람은 자책하며 힘을 잃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의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잠시 낮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녕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징계도 달게 받고 ‘내가 온전치 않아도 변화되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때 결국 높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장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행함으로 진리의 행함을 쌓으면 되지요. 그러면 자신과도 화평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 3.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를 희생해야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화평은 무례히 행치 않고 나를 드러내어 자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 주어야 하지요. 또한 편벽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이것도 저것도 가한 양면성이 있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맞춰 줍니다. 설령 내 의견이 옳고 좋아 보여도 비진리가 아니라면 상대 의견을 따라 주는 것입니다. 이런 화평을 온전히 이루려면 상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면 자기 의와 틀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성품과 환경, 교육 수준과 믿음의 분량 등이 달라서 저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뿐 아니라 좋고 나쁨의 기준이 다릅니다. 정리정돈 하나만 놓고도 부부가 서로의 입장이 달라 자기를 주장하다 보면 화평을 못 이룹니다. 내 입장, 내 기준이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섬길 때야 화평이 이뤄집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라면 사람과도 화평을 이룹니다. 자기 욕심과 교만, 자존심, 의와 틀을 깨뜨렸을 것이니 누구와 걸리거나 다툼 일도 없지요. 만약 상대가 화평을 깨려고 해도 먼저 섬기고 희생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과정에서 몇 가지 깨달을 점이 있습니다. 상대와 화평이 깨진 경우 혹여 자신이 부지중에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여 지혜롭지 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참된 화평은 마음으로 이뤄야 합니다. 예컨대, 상대가 나를 섬기거나 인정하지 않을 때 서운하고 속상해도 직접 표현은 안 하지만 말을 돌려 상대를 찌르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피해의식을 드러내거나 때로는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상대가 악하고 주장이 강해 대화가 안 된다면서 무시하는 마음으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화평을 깨지 않아도 상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니 그 의견에 마음을 모으지 않고 가까이하기도 싫습니다. 나중에는 상대의 허물을 말하며 불편함을 표현하지요. 물론 드러내 놓고 화평을 깨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화평을 깨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참된 화평을 이루려면 진정으로 상대를 섬기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섬김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 줘야 하지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여 상대가 감동을 받아 변화되며 화평한 관계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사람은 아들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빛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혼들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진리의 꼴을 먹여 죄에서 떠나고 의와 틀을 깨뜨릴 수 있게 양육하는 것이지요.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불평하고 분리하는 사단의 화가 생길 때도 말씀의 권세로 파하여 화평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죄없이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요 12:24). 누구든지 예수님을 닮아 범사에 희생하고 섬김으로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화평의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도 영적인 권세를 누리시고 하늘에서도 존귀한 자리에서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부는 물론, 부모와 자녀, 형제와 이웃 간에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하나인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하나님과 화평을 이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담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게 되자 하나님 낫을 보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깨지니 전에는 가깝고 친밀하던 하나님이 이제는 두렵고 멀게만 느껴진 것입니다.

우리도 진리 안에서 행할 때는 하나님과 화평하므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전한 화평을 이루려면 죄악을 버리고 성결되어야 하지만, 자신의 믿음 안에서 열심히 진리를 행할 때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룰 때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 곧 진리 안에서 화평을 이뤄야 합니다.

예컨대, 믿음이 없는 가족과 화평하고자 우상 앞에 절하거나 주일을 안 지키다면 잠시 가족과 화평을 이룬 것 같지만 영적으로 는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만들어 화평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 오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횡송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4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가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253-985877 (여금주 이경진)

# “진정 사랑한다면 무례히 행할 수 있을까요?”

예의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은 상대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물론, 피해를 주기도 한다.  
진정 사랑한다면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소중히 대할 수밖에 없기에 상대에게 무례히 행하는 일이 없다.  
그렇다면 내 안에는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자.

##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사례들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죄의 담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사고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등 갖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련된 예배와 기도, 성전이나 성물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나 바로잡아 응답받고 해결받기를 바란다.

### 예배와 기도 시간에 무례한 경우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일 중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조는 것과 다름없으니 기도가 상탈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도 않으신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한다거나 껌을 씹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무례한 것이며, 어린아이들이 떠들며 뛰고 장난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무례한 행위이다. 사사로운 대화를 하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잠냄 속에 드리는 것도 무례한 것이다.

이는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행실들은 결과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피해를 주므로 그들에게도 무례히 행한 것이 된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

배는 일정한 형식과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다 드러져야 한다. 예배 시간에 지각해서도 안 된다.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의이다.

\*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찬양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향을 실어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이다. 정해진 기도회 시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지각하거나 기도 중간에 까닭 없이 돌아다니고 졸음과 잠냄 속에 중언부언 기도한다면 이는 무례히 행하는 것이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툭 치거나 몸을 흔들며 기도를 중단시키는 것도 무례한 행동이다. 다른 사람이 부른다고 해서 기도하다가 바로 눈을 뜨고 기도를 멈추는 것도 마찬가지로이다.

만일, 집에서 입고 있던 편한 복장이나 일하는 차림으로 성전에 온다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다. 물론 수요 예배나 금요철야예배 때는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일터에서 바로 오는 경우도 있기에 결코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또한 교인이 아니라 해도 교회에 갈 때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초신자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이런 구습들을 버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의이다.

### 성전과 성물과 관련하여 무례한 경우

성전이란, 단이 있는 예배당뿐 아니라 담장 안의 마당과 부속 시설 등 성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할수록 하나님의 성전도 사모하게 되니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전에서 무례히 행할 일도 없다. 그러므로 성전은 물론, 하나님과 관련된 성물은 어떤 것이라도 늘 하나님께 하듯 예를 다하여 소중히 대해야 한다.

만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기에 예수님께서도 성전 뜰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상과 의자를 둘러엮으시고 엄히 꾸짖으신 것이다(마 21:12-13).

거룩한 성전에서는 험기 내며 큰 소리로 다룬다든지 사업이나 오락 등 세속적인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성물을 함부로 다루어 상하게 하거나 낭비해서도 안 된다. 성전 어느 곳에서든지 작은 말과 행실 하나하나가 거룩하고 온전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모든 성물에 있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는 사례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인사예절, 대화예절, 식사예절 등 범사에 지켜야 할 예절은 많다.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고 행해 나가는 만큼 주님의 교양을 갖춤으로 무례히 행치 않게 된다. 무례함이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요일 4:20).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다 보면 무례히 행하는 일이 많이 나오

게 된다. 즉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화 통화를 하는 데에도 예의가 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밤늦게 전화한다거나 바쁜 사람에게 전화해서 오랫동안 붙들고 있다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약속 시간에 늦는 것, 남의 집에 불쑥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사적인 경우에는 무례하고, 공적인 자리에서만 예의를 갖춘다면 이는 겉치레에 불과하다. 세상의 법과 질서도 잘 지켜야 무례히 행하는 일이 없게 된다.

특히 가족처럼 함께 지내거나 가깝고 편한 사이일수록 무례히 행치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말을 가리지 않거나 함부로 대하여 상처를 주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혹여 나이가 어리거나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무례히 대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런 모습들은 신속히 고쳐야 마음을 선으로 일궈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이루어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예를 다하여 섬김으로 장차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사들,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최고로 여김 받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

GLOBAL CHRISTIAN NETWORK NOVEMBER 2015 GUIDANCE ON PROGRAM CHANGE & LIFE	GCN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b>주요 프로그램 안내</b> 2015/11/01 ~ 11/07	이주목 목사의 생명의 말씀	GCN TV설교	예능 프로그램	해외성회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민의 역사 3</li> <li>3차 영혼육 9-13</li> <li>민음의 분량 21-27</li> <li>창세기 강해 41-45</li> <li>요한계시록 강해 81-86</li> <li>천국 42-46</li> <li>하나님의 뜻</li> <li>우리가 바라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교의 신앙 2 (이수전 목사)</li> <li>나의 수고는? 2 (이미경 목사)</li> <li>은혜 (이희선 목사)</li> <li>욥기 강해 14 (신동초 목사)</li> <li>열재앙 10 (정구영 목사)</li> <li>성령의 9가지 열매 9 (김수정 목사)</li> <li>역사사지 2 (고경아 전도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5</li> <li>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1</li> <li>창조와 과학 17 English 3</li> <li>내 마음의 찬양 19 옛날 옛적에 7</li> <li>모두 드려요 37 즐거운 요리 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스라엘 연합대성회 1</li> <li>민음으로 걸어온 길 14</li> <li>희상 [시즌2] 5</li> </ul>	

2003년에 결혼한 저희 부부에게 2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병원에서는 낙태를 권유하였지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임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신이 되더라도 미숙아를 출산하거나 유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내는 항상 식욕 부진, 피로, 영양 결핍, 적혈구 감소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기에 안타깝게도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이에 대해 너무나 간절하였기에 다시 병원을 찾아가 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는 아내의 나팔관이 막혀 있다는 절망적인 소식뿐이었지요.

2007년부터 1년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에 주술과 흑마술, 인도의 전통의학을 통해 치료받고자 백방으로 알아보고, 힌두 사원도 찾아다니며 기도해 보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고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기 위해 그 분야에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 시술도 받아 보았지만 6일 뒤 아내가 구토 증상을 보이고 하혈을 하여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국 만민중앙교회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에 대해 알게 되어 2013년 12월부터 텔리만민 교회에 아내와 함께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김상휘 목사님은 저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며 부부가 함께 주



▲ 소중한 딸과 아내와 함께한 프로모드 꾸마르 성도 (41세, 인도 텔리만민교회)

## “하나님 권능으로 12년간의 불임을 치료받아 예쁜 딸을 낳았어요”

일 성수를 하고 십일조 생활을 해야 함을 알려 주셨습니다.

또한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를 주셔서 저희 부부는 이 책을 읽으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이에 하나님 뜻을 좇아 주일 성수와 십일조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무안단 물을 마시며 마음의 소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한 사진을 한국 만민중앙교회에 보

도 받았고, 당회장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에 염려가 되지 않았지요.

그 결과 2015년 4월, 아내는 딸을 순산하였고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축복받은 저희 가정은 예쁘게 자라는 딸을 바라보며 너무나 행복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권능으로 응답받기까지 인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춘화 성도 (67세, 2대대 14교구)

## “허리디스크를 치료받으니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오른쪽 종아리에서 시작한 통증이 고관절까지 올라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매우 힘들었으며 계단은 더욱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를 복용해도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요. 이에 물리치료를 받아보고 척추 주사를 여러 차례 맞아봤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2013년 8월, 통증을 견디다 못한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습니다. 진단 결과, 요추 4~5번 사이 추간판이 탈출되어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수술을 해야만 하였지요. 제 형편으로는 수술비용도 고액인 데다가 그나마 수술을 해도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겁이 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 리만창 집사가 “어머니!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수술을 받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2014년 2월, 저는 무척 반가운 마음에 만민중앙교회에 다니는 며느리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전 세계 곳곳에서 치료 받은 간증들을 들으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던 지난 8월, ‘만민 하계수련회’ 첫날 교육 후 은 사집회 시 당회장의 환자기도를 받은 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수련회 셋째 날에는 중국교구 모임에서 강사 이수진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실 때 뛰면서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지요. 전체를 위해 단에서 해 주시는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은 뒤에는 온전히 치료받아 계단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연약한 저도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요추 4~5번 사이 추간판이 탈출되어 신경을 압박하던 허리디스크를 기도받은 뒤 치료받았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명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창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밭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전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서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용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3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325-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해례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8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안생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